



유관순과 함께 춤을

Worship with the Little Girl

Dreamy School



이것은 병천 소년소녀들의 찬양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공주 가는 길

허윤진



† 허윤진

공주 가는 길

고요한 식사 시간, 식기를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연속해서 들려왔다. 묵묵히 숟가락을 뜨시는 아버지는 아무래도 정말 나를 보내시기로 다짐하신 것 같았다. 나는 어째서인지 다른 날 보다 한 주걱 더 올라가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야무지게 퍼서 입안에 넣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는 고사리와 백김치도 한 점씩 집어서 밥알이 다 씹혀 사라지기 전에 얼른 입에 넣었다. 평소에 잘 손대지 않았던 나물들도 한 입씩은 꼭 먹었다. 나는 입안 가득 찬 반찬과 밥을 힘차게 씹었다. 꿀떡 꿀떡 잘만 넘어가던 밥이 오늘 따라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여러번 씹어서 넘기느라 더딘 속도로 밥을 먹었지만 그조차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배 속은 먹은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서 채워져가는데 마음 어딘가는 허전함이 들었다.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빈 그릇들을 치우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그릇들을 옮기고 상을 개었다. 정리가 끝난 후 나는 집

앞 눈발이 흰히 보이는 마루에 나와 누웠다. 집 천장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세한 문양들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눈에 담았다. 두둑히 먹은 밥 때문인지 아님 앞으로의 걱정인지 마루바닥에 누워 있으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누가 지켜주나, 대장인 내가 없으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제 누가 이끄려나. 아직 철없는 관석이와 젓먹이 인석이는 또 누가 돌보아야하나. 이제와서 아무렇지 않게 떠나기에는 수 많은 일들이 마음을 건드렸다. 나는 한 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발을 힘차게 휘둘러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큰 소리로 외쳤다.

“저 나갔다 올게요!”

또랑 또랑한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도 몇 박자 늦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엔 말하지도 않고 잘만 돌아다니더니..빨리 들어와야 한다.”

어머니의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에 나는 입을 달싹이다가 발을 옮겨 집을 나왔다. 그리고 집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감 나무 아래에 쪼그려앉았다. 커다란 감 나무 아래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다. 작게 고인 웅덩이를 보고 있으니 우물에 비친 모습만 보면 나보다 자신이 더 예쁘다고 말하던 동순이가 생각났다. 그럴 때 마다 아무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내 말에도 끝까지 캐묻던 얄미운 기집애. 그런 동순이도 잘만 보이던 평소와 다르게 오늘따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게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솟구치는 마음에 굽혀있던 무릎을 펴서 눈앞에 있던 웅덩이 위로 발을 올려놓았다. 잔잔했던 물결에 정신없이 파동이 일

어났다. 그리고 이내 발을 감싸듯이 잔잔해진다. 물 웅덩이에는 한껏 이마를 모은 고집 세 보이는 검은 눈동자의 어린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는 어딘가 혼란스러워보였다. 물결에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때문인지 어딘가 슬퍼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웅덩이에서 시선을 떼어 고개를 들었다. 넓게 퍼진 논밭위로 주황빛의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길게 늘어진 강물이 보였다. 지금 이 시간도 저 강물처럼 그저 그냥 흘러가는 듯 했다. 가만히 흘러가는 물결을 보니 단념한 듯이 묵묵하게 밥을 드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집을 떠나가도 괜찮은 걸까. 가족이란 뭘까, 같이 살지 않아도 여전히 가족인걸까. 나는 이제 어디로 향해가는 것일까. 끝도 없이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하다보니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 중, 눈에 띄는 매끈하고 반듯한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집 뒷 편으로 걸어갔다. 잔디와 잡초, 들꽃이 뒤섞여 있는 풀밭 가운데 들고왔던 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모래를 모아 꽃아 두었다. 내려놓은 돌은 넓게 퍼진 풀밭 사이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로 솟은 얇은 나뭇가지가 그 위치를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쫓그려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언뜻 보면 땅에 굴러다니는 다른 돌과 차이점이 없는 돌인데 얼마나 봤다고 유독 그 돌이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게되면 다시는 이 돌을 볼 수 없겠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걸까, 오히려 마음만 이상하게 아렸다. 나는 당장에라도 누군가가 툭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기분에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다. 내가 떠나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줄까. 이대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치마자락에는 검게 물든 눈물자국이 보였다. 그게 마치 두 웅덩이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에서 시선을 올려 다시금 돌을 쳐다보았다. 걸보기에는 매끈하기만한 돌인줄 알았는데 군데군

데 금이 간 흔적들이 보였다. 차갑게 느껴지는 색인 것 같다가도 은은하게 비치는 햇빛 때문인지 따뜻해 보이기도 했다. 요상한 돌 같으니라고, 그때 뺨을 간지럽히는 바람이 불어왔다.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훗훗한 눈가를 식혀주는 것 같았다. 눈 앞의 풀밭이 바람을 따라 흔들렸다. 하지만 꽃아둔 나뭇가지와 돌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어찌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되어도 이 돌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마 나는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고 가고 싶었나보다. 따뜻한 햇빛이 어깨를 감싸주어 나른해지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내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옆에 놓여있는 갈색 가방안에 하나하나 가지런히 개어있는 옷들을 보니 괜히 심술이 났다. 옷들을 훌훌어놓고 싶은 기분이 들다가도 그것을 개시는 어머니의 손이 마음 한 켠을 묵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다가간 어머니의 곁에서는 익숙한 향기가 났다. 마음이 한 끝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도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한 공기속에서 나는 조금 뜬을 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짐을 정리하시던 어머니는 내가 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 내 말에 별 반응 없이 짐을 꾸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잔잔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관순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샤프 부인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지?”

나는 어머니의 뜬금없는 질문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샤프부인이 우리 동네에 온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어느날 대뜸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가진 우리와 다르게 깊은 바다처럼 푸른 눈동자에 노란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올리고 있었다. 반듯한 이마, 짝 다문 입. 그녀의 그런 첫인상은 강인해 보기도, 한편으로는 묵묵해보이기도 했다. 먼 타지에서 부터 이곳까지 온 듯한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려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다가도 굳이 그들의 집까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가다 그녀는 햇빛이 잘 드는 낡은 교회 의자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항상 동일했다. 내가 동순이하고 꽃집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그녀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다. 남루한 옷보단 부드러운 비단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녀는 섞이지 못 할 것 같았던 우리와 어느새 가까워져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유독 말괄량이었던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처음엔 유심히 쳐다보기만 하는 낯선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한때는 일부로 그녀를 피해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날 그녀는 줄곧 배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내가 배움에 관심이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이 꽤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샤프 부인의 수양딸로 가게될 줄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생각을 마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나를 본 어머니는 옷을 개시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셨다.

“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우리는 네가 항상 배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지금 상황에서는 샤프 부인이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내가 모르는 뒷이야기에 좀 더 귀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아시는지 싱긋 웃으시면서 말을 이어가셨다.

“관순이 너는 워낙 밝고 똑부러져서 어딜가든 잘 해낼 것같았단다. 네 아버지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무척이나 섭섭해하시고 계시니 딸인 네가 이해하고 씩씩하게 인사해주렴.”

나는 어머니의 속마음과 부탁을 들었음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신 짧은 대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마루에는 별다른 것들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다만 정갈하게 마무리된 짐들과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했다.

시간이 되고 차 한 대가 우리 집앞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곳에서 샤프 부인이 조심스럽게 내리셨다. 나는 미리 정리해둔 갈색 가방과 보따리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런 나를 맞이하는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부인은 왜 하필 나를 수양딸로 입양하신 걸까. 조건없는 그녀의 애정에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나는 내게 손을 내미는 그녀의 손위에 나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맞잡은 그녀의 손은 강인하고

따뜻했다. 멋드러진 정장과 모자를 쓴 그녀의 깊이 있는 파란눈이 나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 뒤편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신 어머니와 나를 묵묵히 바라보는 아버지가 서계셨다. 그런 가족들의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기분은 먹먹하기도하고 불안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기도 하였다. 여러가지 몰려오는 감정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부인은 그런 나의 손을 더욱 굳건하게 잡아주었다. 아마 나를 달래주시려는 걸까,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요동치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렇게 집을 나온 나와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차의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창문 밖에는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살짝 열려진 창문 틈에서 들어오는 기분좋은 바람이 귀를 간지럽혔다. 창밖에는 무성히 자란 풀들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쓸쓸하게 느껴졌던 풀밭이 지금은 마치 나를 배웅해주는 듯 했다. 무성한 풀밭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마한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을 안에는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왠지 그 아이들이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안되는 내 마음이 원망스러웠다.

굴러가던 차의 바퀴가 멈추고 마침내 도착한 언덕에는 마치 동화속에 나올 것 같은 빨간 지붕의 집이 있었다. 머뭇거리는데 나에게 옆에 있던 그녀는 나의 등을 감싸며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문앞으로 이끌었다. 벽돌들이 쑹쑹이 쌓인 벽과 각진 문에 다다르자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집 안은 생전 처음 보는 구조를 띄고 있었다. 위로 솟은 계단, 누런끼 하나 없는 하얀 벽지, 잘 정돈된 바닥. 발을 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 천지였다. 정말 어여쁜 집이었다. 그녀는 냇을 놓고 집안을 구경하는 나를 이층으로 데리고 갔다. 길지 않은 복도를 지나고 창문 가까이 있는 문 앞에 멈

취선 그녀는 이곳이 나의 방이 될 곳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새로운 내 방이라는 말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매끈거리는 손잡이를 잡았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손잡이를 열고 들어간 방은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늑해 보였다. 어쩌면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은 누군가가 계획한 일이 아니였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안으로 발을 들였다. 갈색 나무 탁상과 그 위에 올려진 노란색 꽃 병, 새하얀 커튼이 달린 창문. 그리고 당장이라도 누워 보고 싶은 아늑해보이는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기자기한 가구들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둘러보았다. 내가 방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는 방문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서계셨다. 나는 부인께서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정신없게 방안을 둘러보았던 것이 살짝 부끄러워졌다. 부인은 그런 나를 보시고는 싱긋 웃으면서 짐정리가 끝나면 밑층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에 얼른 대답을 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왔던 낡은 갈색 가방이 달각하고 열렸다.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옷들과 몇권의 책들이 들어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짐들을 보니 고요하게 짐을 꾸리던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이 났다. 나는 조용히 개어져 있는 옷들을 꺼내어 들었다. 그곳에서 은은한 어머니의 향기가 났다. 나는 옷을 끌어안으며 생각했다. 이러면 어머니의 냄새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온 몸을 작게 움츠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향기 속에서 유영한지 얼마나 지났을까, 여기저기로 요동치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고요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아까전만 해도 아기자기 아늑해 보이던 방안이 한 없이 쓸쓸해 보였다. 아, 또 다시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나는 터져나오려고 하는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몸을 움직여 여기저기 널부러져있는 짐들을 하나 하나 자리에 배치했다. 열심히 짐을 정리하다보니 외면했던 감정들도 어느새 사라져있었다. 어느정도 짐 정리가 마무리 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리하는 내내 눈에 들

어오던 침대에 누웠다. 보드라운 이불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몸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주었다. 침대 반대편에 위치한 창밖에는 어느새 붉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온한 상황 때문인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었다. 아무생각 없이 지는 해를 보며 점점 감기는 눈을 애써 깜빡 거리던 나는 짐이 다 정리되면 밑층으로 내려오라는 부인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급하게 몸을 일으켜 서둘러 아래층으로 향했다.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내려간 밑층에는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틈에서 유일하게 새어나오는 빛이 나를 이끌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방안에는 샤프 부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서는 얇은 눈물이 흘렀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리 서글프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탁상에 올려져있는 고동색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 안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두사람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인의 깊고 따뜻한 파란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저 여인은 부인의 젊은 모습일까. 그녀의 옆에 정혼자로 보이는 신사분은 짙은 눈썹아래 정의롭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멋진 남성이었다. 한눈에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우리 마을에 온 후 한 번도 자신의 배우자를 데려오거나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집에도 신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같이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듯 했다. 마치 나의 처지와도 비슷한 그녀의 사정을 알아버린 것 같아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던 문 틈을 닫고 어두운 복도에 혼자 서있으니 가족들의 얼굴과 옛친구들이 생각났다. 티격태격했지만 항상 밝게 웃어주던 동순이,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던 어머니, 미워할 수 없는 천방지축 인석이. 그리고 과묵하신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이들의 온기가 지금 자신

의 곁에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 달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급하게 손을 올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방을 나온 샤프 부인의 눈에는 그런 어설픈 자신의 행동이 다 드러나 보였나보다.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혼자라고 생각하던 것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온기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탓일까, 나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녀의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집을 나서서 새로운 집과 방을 맞이하게 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 가족들과 떨어진다는 슬픔, 삶의 목적지를 모르는 불안함, 묵묵히 배웅하시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도꼭지를 돌린 것 처럼 멈출 줄 모르던 눈물은 어느샌가 멎어 있었다. 부인께서는 그런 나를 다독이며 거실로 이끌었다. 그런 그녀의 손이 살짝 떨고 있었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

어두웠던 집안이 환해지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추스리며 우물쭈물에 하고 있는데 마주앉으신 부인께서 조용히 입을 떼셨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걸 알고 있으신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부인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사랑하던 사람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우리나라의 땅을 밟게 되었다. 그러자 청혼을 한 상대방도 그녀를 따라 이곳에 오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남편은 한국에 오자마자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녀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야기가 끝나고, 나와 부인을 둘러싼 주변의 공기는 고요하기만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란 뭘까. 분명 그녀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녀에게 사명이 무엇 이길래 이 먼 곳 까지 발길을 돌렸을까. 나는 떠오르는 의문과 부인의 안

타카운 사연에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야 할 지 몰라 한동안 입을 달싹였다. 부인은 그런 나를 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많은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았다. 어딘가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다 아물지 못한 상처에 아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먼저 떠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일까. 부인의 아픔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내 사정으로 그녀의 앞에서 평평 울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살짝 망설이다가 앞에있던 그녀의 손을 힘껏 붙잡았다. 부인은 그런 나의 행동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나의 손을 맞잡아주었다. 고요했던 공기가 포근하게 바뀌고, 나와 그녀 사이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인석이 싸우고 돌아왔을 때 혼내준 이야기와 햇빛이 잘 드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뜨개질을 한 일 등, 나는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그녀에게 여러가지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부인은 그런 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즐거워하셨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질간질거렸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 될 갈 즈음, 부인께서는 나에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셨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그녀는 노란 상자를 들고 오셨다. 그리고 앉아있는 나에게 상자를 건네주시면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물이라는 말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열어본 상자 안에는 적당한 크기의 성경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깨끗하지만 어딘가 타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갈색 성경책이었다. 가족의 박음질과 여러가지 부분들을 볼 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성경책인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성경책 아래 쪽에 휘갈겨 쓴 것 처럼 보이는 이국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 주인이 있었던 성경책인 걸까. 나는 선뜻 떠오르는 의문을 물어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부인께서 조용히 입을 열으셨다.

“Sharp.”

낮선 발음이 조용히 귓가에 꽂혔다. 아마 이 성경책 주인의 이름일걸까. 어떨떨해하는 나를 보며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부인은 내가 받은 이 성경책의 주인이 그녀의 남편, 샤프 선교사님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열어보았다. 펼쳐진 성경책을 보니 그녀의 남편, 샤프선교사님이 생전 얼마나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어느 한군데 구겨진 곳 없이 온전하게 펼쳐있는 한 장 한 장이 만나본 적도 없는 그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남인 내가 봐도 이렇게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녀는 얼마나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며 먼저 떠나간 남편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내가 이 성경책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을 차마 입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부담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말하셨다. 내가 꼭 이 성경책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아직은 어색한 그녀의 발음 때문인지, 아님 알 수 없는 표정 때문인지, 나는 아무말 없이 성경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집을 나와 집 주변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 들어간 샤프부인은 맨 앞 자리에서 세번째 자리에 앉았다. 나도 그녀를 따라 조금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자리했다. 부인은 옆에 앉은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 집에서 본 그녀의 서글픈 기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치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지 않은 것

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기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커보였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까. 그녀에게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저 기도의 목적지가 그녀가 이렇게 될 수있게 만들어준 것일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와 다른 그녀의 모습이 대단했다. 어쩌면 그녀를 통해 계속 고민했던 생각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선물받은 성경책을 꼭 쥐었다. 아마 이 성경책을 내게 준 의미는 내가 그녀의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일까,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처럼 나도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집중해도 되는 걸까.

나는 부인에게서 시선을 떼어 그녀를 따라 두손을 모으고 눈을 살며시 감았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시야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조금씩 떼어 말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15일 류제웅 선생님과과의 만남〉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1919년 4월의 함성과 총성은 온데 간데 없고, 벌써 백년을 훌쩍 넘어 2021년 가을, 병천의 장 날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만세소리 외쳤던 아우내 장터 자리는 인적 드문 공원이 되어 가끔씩 오가는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네요.

1년 전 어느 날, 천안 삼거리 어느 건물에 그려진 유관순 캐릭터를 보고 시작했던 ‘유관순과 함께’ 시리즈 수업은 이 한권의 소설과 이후에 완성 될 세 권의 그림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차츰 만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사애리시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의 부모형제와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통해 소녀 유관순, 신앙인 유관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유열사의 두려움을 상상해보았으며, 암흑 같던 당시에 소망을 잃지 않는 유관순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소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상상에 큰 줄기를 먼저 그려주신 서만철 교수님과 류제웅 선생님, 류효상 천안 쌍용지구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서를 통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었던 유관순 열사의 뜻이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랍니다.

〈유관순과 함께 춤을〉 지도교사 윤창권